

운동경기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연일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광고를 본다. 굳이 올림픽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운동 경기와 프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 모두의 열의와 관심은 (좀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광분의 수준에 이른 듯 하다.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각종 운동 경기 및 이에 연관된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보유해야 할까?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은 어때야 할까? 좌우간 이것이 이번 책갈피가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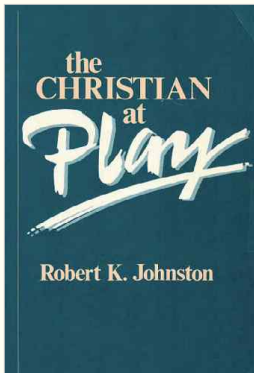
역시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이 문자 그대로 전무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팸플릿 수준이나마 이 주제에 대한 안내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¹

(그것도 50년 전인 1967년에!) 아직까지 필자는 스포츠에 대한 한국인 크리스천의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말의 의미인즉, 이번 책갈피도 다른 나라 저자들의 책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¹ A Group of Christians at King's College, Budo, Uganda, The Christian and Sport (Achimota, Ghana: Africa Christian Press, 1967), pp. 1-24.

책 소개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하자. “놀이”(play)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대상을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창의적으로 즐기는 비체계적 활동”이다. 놀이에 규칙이 더해지고 (사람이 많을 경우) 팀이 구성되면 “경기”(game)가 된다. 스포츠(sport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영 규칙이 보편화되고 경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경기를 말한다.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활동인 놀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Robert K. Johnston, *The Christian at Pla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놀이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서이다.

존스톤(Robert K. Johnston, 1945-)은 이 책의 저술 당시 노스파크 신학원(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의 <신학과 문화> 과목의 교수로 재직했고, 1993년 이래 풀러신학원에서 역시 <신학과 문화>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화 관련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화와 영성」(2003년 IVP 간),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일부)(2007년 살림 간) 등의 책이 번역되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

제 2 장 놀이: 정의의 사안

제 3 장 놀이: 세 가지 신학적 선택안

제 4 장 놀이: 성경적 모델

제 5 장 일: 놀이와의 관계

첫째 장에서 존스톤은 현대인들이 여가와 관련해 나타내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 중심의 가치 체계에 빠진 현대(미국)인에게 “놀이”의 경험이 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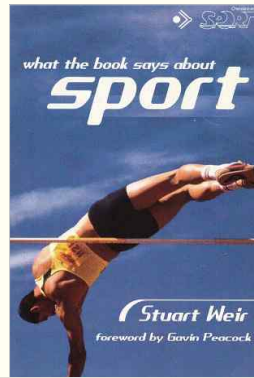
그러면 놀이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둘째 장에서 전개된다. 존스톤은 놀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며 대신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한다. 놀이는 우선 시간과 공간에 있어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낸다. 개인적 자유가 중시되고 공동체 지향적이다. 또 즉흥적이되 계획/설계의 측면이 도외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산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는 놀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대표적 주창자들의 견해가 소개된다. 우선 철학자/종교학자인 샘 킨(Sam Keen, 1931-)은 놀이라는 현상을 개인적 치유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반면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은 자신이 주창하는 희망의 신학(및 해방의 신학)을 구체화하는 방편으로 놀이를 채택한다. 이 두 학자는 놀이를 다른 것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놀이의 진면목을 짚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놀이에 대한 통찰력은 놀랍게도 전문 신학자가 아닌 이들에게서 발견된다. 우선 피터 버거(Peter L. Berger, 1929-2017)는 사회학자로서 놀이가 세속화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초자연적인 것의 신호”(signals of transcendence)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기초만으로는 신학이 수립될 수 없고, 놀이 경험 또한 그 의미가 감축된다. 바로 여기에 루이스(C. S. Lewis, 1898-1963)의 놀이 경험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등장한다. “기쁨”이라 불리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접수하는 통로가 된다.

4장은 이 책의 클라이맥스에 해당이 된다. 지금까지 교회는 놀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 회랍적 모델 [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놀이를 귀하게 여기는 견해]이나 프로테스탄트적 모델 [일이 놀이에 반대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곤 했다. 그러나 존스톤은 여기에 제3의 길인 히브리적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놀이와 일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강조한다. 존스톤은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서 (1) 안식일 휴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야기되는 바, (2) 전도서가 제공하는 충고의 근본이 되는 바, (3) 아가서의 성 묘사에 편만히 나타나는 바, (4) 축제, 춤, 잔치 및 나그네 접대에서 행동화되는 바, (5) 예수님의 우정이 갖는 패턴에서 중심인 바를 열거한다.

5장은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결론에서 그런 모범적 인물로서 본혜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내세운다.



Stuart Weir, *What the Book Says about Sport* (Oxford: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2000).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자.

저자인 위어(Stuart Weir)는 스포츠 관련 작가이 기도 하고 토고,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의 스포츠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도 맡았다. 영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진 Christian in Sport 단체의 대표[1990-2006년]를 지냈고, 2006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비슷한 스포츠 선교 단체인 Verité Sport의 실무 대표자로 봉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문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였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책자의 구성구성은 스포츠맨들의 경험담과 그들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다.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 제 2 장 스포츠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 제 3 장 시간 사용을 유익하게
- 제 4 장 크리스천 스포츠맨 - 모순된 용어?
- 제 5 장 하나님은 누가 이기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제 6 장 주일에는 결코 안 되는가?

제 7 장 스포츠계를 그리스도께

제 8 장 스포츠와 개별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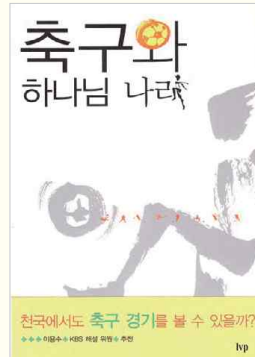
제 9 장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

1장은 스포츠의 정의와 성경에 나타난 스포츠 관련 구절들을 소개한다. 2장은 창조-인간-타락-심판-구속이라는 다섯 가지 표제 하에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성경 신학적으로 시도한다. 3장은 스포츠 활동과 교회 봉사가 시간 사용의 면에서 야기하는 갈등의 문제를 논한다.

4장은 스포츠 활동에 연관한 몇 가지 사항 - 일요일 경기, 경쟁심, 승리, 교회 봉사와의 마찰 등 - 이 기독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5장은 운동 경기에서의 승패 문제를 현실감 있게 논하고 있다. 특히 6장에서는 대부분의 경기가 주일에 시행되는 현실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인 스포츠인들로서 어떤 방침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마지막 세 장은 스포츠 사역에 대한 것이다. 7장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 사역을 논하고 있고, 8장은 개 교회 단위에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을지 제안을 하는가 하면, 9장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음 책자로 넘어가자. 비록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의 각도에서 스포츠를 조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번역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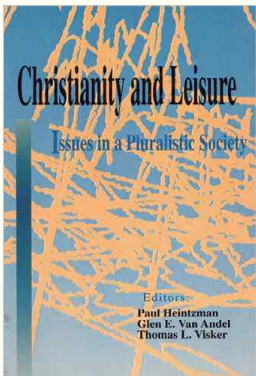
마크 로크스 지음, 김종호 옮김, 「축구와 하나님 나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로크스(Mark S. Roques)는 과거 11년 동안 프라이어 파크 대학(Prior Park College)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가르쳤다.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서 영화 · 음악 · 스토리텔링 · 드라마를 융합한 기독교 세계관 코스를 개발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서부 요크셔 기독 학교(West Yorkshire School of Christian Studies)에서 튜터 역할을 하고 동시에 RealityBites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독 신앙의 전달법을 소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 교육의 맥락에서 자신의 가량을 마음껏 선보이기도 했다.

대학에서의 철학 전공과 졸업 후 교직 과정의 이수가 그의 경험 세계 형성에 기여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Institutes for Christian Studies)에서의 3년 간 수학이었다. 이때 그는 도예벨트의 철학에 입문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의 사상과 재능, 관심사가 함께 잘 녹아 있는 책자가 바로 「축구와 하나님 나라」이다. 이 책의 원제는 Fields of God: Football and the Kingdom of God으로서 “하나님의 경기장”이라는 표현이

우선적이다. 기독교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스포츠 [특히 축구]에는 열광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지에 맞추어 기독 신앙의 요체를 전달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관심사이다. 결국 이 책자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마이클 고크의 공저의 「성경은 드라마다」와 알 월터스의 「창조·타락·구속」 내용을 축구라는 토픽을 중심으로 매우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점은 축구 경기가 완성될 천국에서도 여전히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에 소개할 세 권의 책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집대성한 형태의 문집이다.



Paul Heintzman, Glen E. Van Andel, Thomas L. Visser, eds., *Christianity and Leisure: Issues in a Pluralistic Society* (Sioux Center, Iowa: Dordt College Press, 1994).

이 논문집은 1989년 여름 칼빈대학교에서 체육 교육, 여가 연구, 캠핑 관련 분야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모여 여가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본체가 되었다. 다섯 분야에 걸쳐 총 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다섯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성경적·역사적 관점들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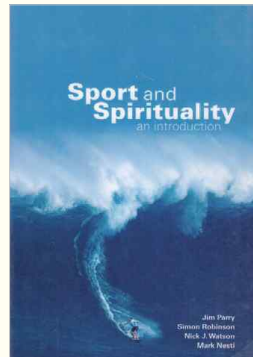
제 2 부 방법론적 이슈들 (2개)

제 3 부 여가에 있어서 현재의 행습들과 도전들 (5개)

제 4 부 놀이, 스포츠 그리고 운동 경기 (7개)

제 5 부 여가와 문화 (3개)

제 4 부가 특히 스포츠와 연관되지만, 실은 나머지 논문들도 꽤 적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Jim Parry, Simon Robinson, Nick J. Watson, and Mark Nesti, *Sport an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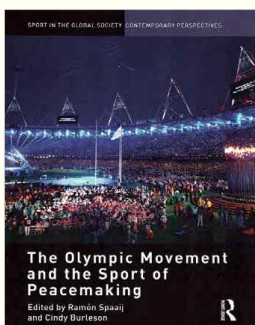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4인의 공저로 되어 있다. 짐 패리(Jim Parry)는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의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철학 공부 후에 체육 교사와 코치로 일했다. 사이몬 로빈슨(Simon Robinson)은 리즈 코스모폴리탄 대학교(Leeds Cosmopolitan University)의 응용 윤리학 교수이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 사회 사업가였다가 영국 교회의 사제로 안수 받은 후 대학의 교목이 되었다. 닉 왓슨(Nick J. Watson)은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York St. John University)의 보건 생명 과학 분과에서 스포츠 심리학 및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 스포츠학과 동시에 신학을 전

공했기 때문에 스포츠 및 종교의 통합 과정을 가르치기도 한다. 마크 네스티(Mark Nesti)는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 강사로 일하면서 스포츠 관련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가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책자는 4부로 나누어지고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부의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부 스포츠와 영성
- 제 2 부 종교와 스포츠
- 제 3 부 실존심리학(existential psychology)과 스포츠
- 제 4 부 윤리, 올림픽 정신(Olympism) 및 영성

세 번째 책자는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일반서적이다.



Ramón Spaaij and Cindy Burlerson, eds., *The Olympic Movement and the Sport of Peacemaking* (London: Routledg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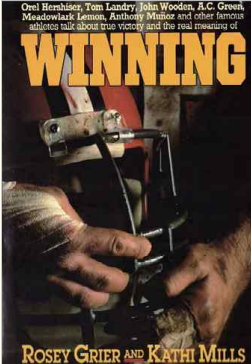
이 책은 루트리지 출판사가 기획한 Sport in the Global Society: Contemporary Perspectives (Senior Editor: Borin Majumdar) 시리즈 [45권] 가운데 한 권이다.

라몬 스파아이(Ramón Spaaij)는 호주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 소속 사회 과학 학교의 선임 연구원이고, 신디 벌리슨(Cindy Burlerson)은 미국 미시시피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고아 후원 단체 International Sibling Society의 의장이다.

이 책자의 특징은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과 스포츠 평화 정신(sport of peacemaking)을 접속시킨다는 데 있다. 이 책의 11가지 글들은 원래 스포츠 학술지인 Sport in Society, Vol. 15, Iss. 6 (September 2012)의 게재물이었다. 이 글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섯째 글 Darin H. Van Tassell and Dené A. Terry, “An overlooked path to peace and stability: sport,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Koreas”이다. 이 논문은 특히 하계도 한국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스포츠에 임하는 매너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밴 테슬(Darin H. Van Tassell)은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 남부 대학교의 국제 관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테리(Dene A. Terry)는 조지아 대학교 법대의 교수이다.

끝으로 소개할 두 권의 책자는 크리스천 운동 선수들의 간증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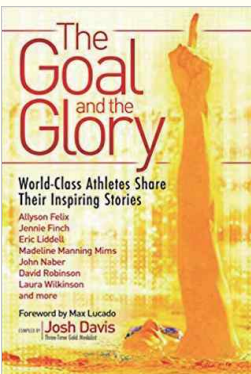
그라이어(Rosey Grier)는 유명한 축구 선수이고 그의 아내 밀즈(Kathi Mills)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이 두 부부는 38명의 유명한 미국 선수들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육상, 스케이팅, 테니스 -로



Rosey Grier and Kathi Mills, *Winning* (Ventura, CA: Regal Books, 1990).

부터 승리(winning)가 무엇인지 들은 바를 간증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한 권은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되 간간히 다른 나라 운동 선수들의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Josh Davis, compiled, *The Goal and the Glory* (Ventura, California: Regal, 2008).

이 내용의 편찬자인 데이비스(Josh Davis) 자신이 수영 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세 번이나 획득한 인물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는 목표들(goals)이라는 표제 하에 12명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 2 부는 속 사정들(Guts)이라는 원색적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6명의 선수들이 그들의 실망, 두려움, 배

척감, 시험, 기쁨 등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제 3 부는 영광(Glory)으로서 15명의 선수들이 좀 더 원숙한 신앙적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이 코 앞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경기만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문화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고군분투까지도 읽어 내어야 할 것이다. 